종전 협상 기대 확대에 3월 마지막 거래일 큰 폭으로 반등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종전 기대 확산에 크게 반색한 증시

- 미 증시는 DOW +2.49%, S&P500 +2.91%, NASDAQ +3.83% 상승. 기술주를 필두로 유가 상승에 눌림폭 컸던 산업재, 임의소비재 강세 뚜렷. 3 월간 3 대지수는 모두 -5%대 하락
- 이란에서도 종전을 시사하는 발언이 등장한 데 더해,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증시에 긍정적 작용, 타 자산군 대비 큰 폭으로 상승
- 달러인덱스 99.7 하락, 국채금리 하락 10Y 4.318%(-2.4bp), 2Y 3.791%(-3.7bp), 금 +3.2%

상대적으로 유가 변동폭은 제한적 WTI -1.3%, Brent +0.5%

- 이란 대통령 발언이 기대감 확대. 침략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보장책 등 필수여건 마련시 종전 의사 있음 밝힘. 기존 미국·이스라엘의 15 개 합의안에 부정적이던 데에서 한 발 물러난 것
- 다만, 앞서 WSJ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 없이 종전 가능 언급, 군사갈등 중단시에도 아시아 원유수급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여지

고용과 물가, 혼재한 금리 전망

- 2 월 JOLTs 구인건수 약 688.2 만건 전월비 감소·컨센 하회. 구인율 4.4→4.2%, 채용률 3.4→3.1%, 해고·방출률 1.0→1.1%. 1 월 구인·채용은 소폭 상향조정
- 3 월 CB 소비자신뢰지수 91.8 전월·컨센 상회. 향후 12 개월 인플레이션 기대치 지난해 8 월 이후 최고수준 상승. 이번주 미 전국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3 년만에 $4/gal 돌파
- CME FedWatch 금리전망 혼재. 대체로 동결기조 유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나, 올해 9 월 이후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인상 기대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

특징주: 마벨-엔비디아 파트너십, 오라클 추가 인원 감원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6.0%	마벨(+12.8%)에 $2B 투자하며 NVLink Fusion 기반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. 고객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마벨의 커스텀 XPU를 조합해 최적화된 AI 팩토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. 실리콘 포토닉스 및 AI-RAN 협력을 통해 글로벌 통신망까지 엔비디아 아키텍처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로드맵 본격화
ORCL	오라클	+6.0%	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수천 명 규모의 추가 감원 단행. 지난 1월 TD 코웬은 2~3만 명 규모의 감원이 이루어질 경우 약 $8B~$10B의 추가 잉여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. 번외로 오픈AI는 아마존($50B), 엔비디아($30B), 소프트뱅크($30B) 등으로부터 총 $122B 규모의 역대급 투자 유치 완료
STX	씨게이트	+8.1%	터보퀀트발 우려에 대해 JP모건은 일시적 노이즈라 분석하며, 투자의견 '비중확대', 목표주가 $525 제시하며 커버리지 개시. 한편 Citi는 마이크론(+5.0%)의 목표주가를 $510 → $425로 하향 조정
CEG	콘스텔레이션 에너지	-6.5%	기업설명회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데이터센터향 신규 전력 공급계약 발표 부재. 더욱이 예상치 하회하는 '26년 수익 가이던스 제시에 실망 매물 출회
NKE	나이키	+3.1%	장 마감 후 3분기 실적 발표, 시간 외 -9%대 하락. 매출 및 EPS 모두 컨센 상회한 가운데, 북미 지역 관세 인상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하락, 고마진 DTC(소비자 직접 판매) 매출의 부진, 중화권 매출 감소 등 영향